

News

카카오뱅크, 보호예수 해제에 추가 하락 우려

디지털타임스

6일 기준 의무보유등록 해제… 의무보유 확약이 종료되는 카카오뱅크 주식은 총 3억 3,171만주… 전체 발행주식수의 69.8% 해당

카카오 보유 1억 2,953만 주,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보유 1억 1,048만 주, 국민은행 보유 3,810만 주 등 매도 가능… 카카오 외 주요 주주들이 매각 가능성 높은 것으로 예상

대출금리 뛸 때 예금금리는 '찔끔'… 예대금리차 2년4개월래 최대

뉴스1

예금은행의 작년 1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0.83%, 총대출금리는 연 3.04%로 집계… 예대금리차는 2.21%p로 전월비 0.02%p 확대

대출금리 만기 도래하며 이전에 저금리로 받았던 대출금리가 올라 예대금리차 확대된 것으로 분석…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… 정치권도 공시 의무화 등 관심 증가

토스뱅크,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상품 2월 안에 내놓기로

비즈니스포스트

토스뱅크, 2월 안으로 개인사업자 전용대출 출시… 무보증·무담보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상품 출시 목표 세워…

최저금리는 연 3%대 중반, 대출한도는 1인당 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… 또한 비바리퍼블리카는 CB 설립을 추진 중… 1분기 안 설립 목표를 위해 예비인가 신청한다는 계획

하나·우리금융 새 수장 선임 1~2주 빨라질듯

파이낸셜뉴스

하나금융과 우리금융, 각각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새로 뽑는 절차를 예정보다 1~2주 가량 앞당길 가능성 높아…

하나금융, 8일에 회장후보자들 대상 면접 진행 예정… 2월 중순보다 10일 정도 앞당겨… 우리금융의 우리은행 선임절차도 1주일 가량 앞당겨져… 이원덕 수석부사장 유력

보험사 속 태우던 보험업법 20년 만에 개정한다

한국금융신문

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, 2월 3주차에 '금융업법 전면 개정'을 위한 킥오프 회의 진행 예정… 보험업법 전면 개정 작업 준비 중

특히 디지털 추세에 맞춰 디지털 보험 선보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 맞출 계획… 업계는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, 자회사 규제 완화,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거론될 것으로 예상

금감원, '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'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

조선비즈

금융감독원, 최종적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제재안 심의 받아온 삼성생명에게 기관경고 통보 내려… 26일 제재안 심의 끝낸데 따른 최종 조치

금융위원회, 정당한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… 기관경고 조치 유지 및 과징금 1억 5,500만원 부과… 삼성생명, 종합검사 결과서 내용 검토 후 대응 방향 결정할 것 언급

“美주식거래 이젠 낮에 하세요”… 삼성증권, 첫 주간거래 서비스

동아일보

삼성증권, 미국 주식 전 종목에 대한 주간 거래 서비스 시작… 한국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정규장처럼 미국 주식 실시간 매매 가능

거래 수수료(온라인 기준 0.25%)와 적용 환율은 정규장과 동일… 미국 대체거래소인 '블루오션'과 독점 제휴 맺어 세계 최초 주간 거래 지원… 다만 유동성 적고 변동성 큰 점 유의

금융위, 반대 매매 100억 땐 증권사에 자체 부탁하더니 200억 땐 입 ‘꾹’

이투데이

금융위원회, 반대 매매를 시장에 맡기는 모양새… 지난달 하루 평균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06억 1,560만원 수준

증권사에 반대 매매 자체를 부탁했던 2020년 3월, 8월보다 현재 일평균 기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검토하지 않아… 수장 변화가 원인으로 분석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